



추신수 1000만달러 사나이



미국프로야구 진출 후 올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처음으로 연봉조정 자격을 얻음에 따라 다음 시즌에는 거액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7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서 "연봉조정을 처음으로 맞은 선수 중에 추신수가 가장 큰 관심이며 클리블랜드가

내년연봉 조정... 클리블랜드 장기계약 제시 가능성

46만달러 받은 올해보다 10~20배 대박 인상 기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봉조정은 메이저리그에서 3년 이상 펜신수가 4년부터 자유계약선수(FA)가 되기 전인 6년까지 해마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연봉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구단과 선수가 제시한 연봉안을 심사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쪽의 손을 들어준다.

추신수는 지난해 연봉 42만3000달러를 받다가 빅리그 등록기간이 연봉조정 자격에 열을 모자란 탓에 올해 연봉이 46만1100달러(한화 5억1천600만원)로 거의 동결되다 시피했다.

에이전트인 스포츠 보라스는 올 시즌 추신수의 폭발적 활약과 잠재력, 파생되는 시장 가치 등을 조목조목 살펴해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서 거액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신수는 정상적으로 뛴다면 2013년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장기계약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클리블랜드는 이미 올 시즌 초에 추신수에게 5년 계약을 제시했으나 보라스가 커져만 가는 추신수의 시장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를 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신수는 올해까지 두 시즌 연속으로 20 홈런·20도루와 타율 3할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팀 내에서 최다 홈런(22개)과 타점(90개), 도루(22개)를 기록했으며 나비에서도 리그 최고의 외야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추신수는 내년 연봉이 최소 500만달러(한화 56억원)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FA를 포기하고 클리블랜드와 장기계약을 선택한다면 연봉 1000만달러(112억원) 안팎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 뛰었던 투수 김병현은 2003년 시즌 후 보스턴과 연봉 조정을 거쳐 2년간 1000만달러에 계약했던 적이 있다. /연남뉴스



몸푸는 해외파들

일본과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7일 오후 경기도 파주 NFC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훈련에서 박지성과 차두리 등이 조광래 감독의 지시를 받으며 몸을 푸는 모습을 하고 있다. /연남뉴스

미드필드 장악... 日 무조건 꺾는다

조광래 감독 12일 한·일전 승리 비책 밝혀

수명의 맞수 일본과 격돌을 앞둔 축구대표팀의 조광래 감독이 '미드필드 싸움'을 73번째 한일전의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조광래 감독은 1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 친선경기를 위해 7일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로 국외 파견을 먼저 불러들이며 훈련을 시작했다. 조 감독은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전은 내가 선수 때부터 많이 해봤다. 일본은 강도도 뛰지만 재능은 상대다. 일본이 성장해서 우리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재미를 느끼면서 볼 수 있도록 선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조 감독은 이어 "이번 한일전의 관전포인트는 우선 미드필드 싸움으로 보고 있다"면서 "물론 다른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누가 미드필드에서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미드필드를 장악해야) 많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득점과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불만)도 "미드필드에서 나도 미드필드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팀에 많은데 축구팬들이 이를 개인의 능력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비수 차두리(셀틱) 역시 "한일전은 그

자재만으로도 팬들에게 즐거움과 기대를 주는 것 같다. 선수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이 패스 위크가 좋고 간결한 미드필드 플레이를 하지만 우리 미드필더들이 빠르고 강한 선수가 많아 장정만 살리면 좋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표팀에는 엔도 야스히토(감바 오사카), 나카무라 겐고(가와사키), 아베 유키(레스터시티), 하세베 마코토(볼프스부르크) 등 능능있는 미드필더들이 많다.

조 감독은 '필승 해법'을 찾으려고 8일 잠시 대표팀을 떠나 이날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일본-아르헨티나의 친선경기를 직접 관찰할 예정이다. /연남뉴스

할러데이, 노히트노런 대기록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1차전

1956년 월드시리즈 이후 처음

올해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다승왕(21승)인 로이 할러데이(33)가 자신의 데뷔 첫 포스트시즌 경기를 노히트노런이라는 대기록으로 장식했다. 할러데이는 7일(한국시간) 필라델피아 시터즌스뱅크파크에서 펼쳐진 신시내티 레즈

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5전3선승제) 개막전 홈경기에서 9이닝 동안 볼넷 1개만 내줬을 뿐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4-0 승리를 이끌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 노히트노런이 나온 것은 1956년 월드시리즈 이후 54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뉴욕 양키스의 돈 라슨은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브루클린 다저스를 상대로 퍼펙트게임을 일궜었다. 1998년 토론토에서 데뷔한 할러데이는



2003년 22승을 올려 메이저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하는 등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5월30일에는 플로리다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통산 20번째로 퍼펙트게임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다. 할러데이는 그동안 소속팀의 성적이 부진한 탓에 포스트시즌과는 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올해 필라델피아로 옮기면서 가을까지 무대를 밝혔다. 포스트시즌 무대에 처음 나온 할러데이가 눈부신 피칭으로 대기록을 작성했다. /연남뉴스

AG야구대표 대만 격파 해법 찾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사냥을 노리는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라이벌 대만을 격파할 해법 찾기에 나선다.

대표팀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7회 대륙간대회에 전력분석팀을 보내 이 대회에 출전하는 대만 대표팀의 전력을 집중적으로 해부한다. 전력분석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경기운영위원인 유남호 전 KIA

감독과 유지철 전 한화 코치, 최동훈 전 한화 코치 등 3명으로 구성됐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때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승했던 대만은 일본프로야구 무대에서 뛰는 해외파 13명 등 24명의 최정 엔트리를 확보했다.

이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예선에서 대만, 홍콩, 파키스탄과 B조에 편성됐다. A조(일본, 중국, 태국, 스리랑카, 몽골), B조 1, 2위가 크로스매치 방식으로 결승

유남호 前KIA 감독 등 전력분석팀 가동키로

진출을 다룬기 때문에 한국을 대만을 제치고 2위를 해야 일본과 4군 대결을 피할 수 있다. 대만은 대륙간기에 대표팀 주축 선수들을 파견하는 반면 한국은 대학 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꾸릴 예정이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오는 25일 부산 사직구장에 모여 탐검집을 시작한다. 대표팀은 11월8일까지 훈련하고 하투를 한 후 같은 달 10일 중국 광저우로 떠난다. /연남뉴스

산행안내

10월 9일(토)
▲광주에이전시악회 가계도 독설(산행) 10월9일(토)~10일(일) 1박2일 6시 열주체육관주차장 출발(8시15분 무사각구 / 6시30분내외회관입구경유)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aemountain T.010-9312-0510

10월 10일(일)
▲광주에이전시악회 가계도 독설(산행) 10월9일(토)~10일(일) 1박2일 6시 열주체육관주차장 출발(8시15분 무사각구 / 6시30분내외회관입구경유)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aemountain T.010-9312-0510

10월 11일(월)
▲광주에이전시악회 가계도 독설(산행) 10월9일(토)~10일(일) 1박2일 6시 열주체육관주차장 출발(8시15분 무사각구 / 6시30분내외회관입구경유)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aemountain T.010-9312-0510

10월 14일(목)

▲광주청룡산악회 전남 남해군 말안말 10월14일(목) 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8시15분 무사각구 / 6시30분내외회관입구경유)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aemountain T.010-9312-0510

10월 15일(금)
▲광주청룡산악회 전남 남해군 말안말 10월15일(금) 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8시15분 무사각구 / 6시30분내외회관입구경유)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aemountain T.010-9312-0510

10월 14일(목)

▲광주청룡산악회 전남 남해군 말안말 10월14일(목) 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8시15분 무사각구 / 6시30분내외회관입구경유)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aemountain T.010-9312-0510

10월 15일(금)
▲광주청룡산악회 전남 남해군 말안말 10월15일(금) 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8시15분 무사각구 / 6시30분내외회관입구경유)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aemountain T.010-9312-0510

10월 16일(토)

▲광주청룡산악회 전남 남해군 말안말 10월16일(토) 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8시15분 무사각구 / 6시30분내외회관입구경유)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aemountain T.010-9312-0510

10월 17일(일)
▲광주청룡산악회 전남 남해군 말안말 10월17일(일) 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7시30분 열주체육관(8시) 출발(8시15분 무사각구 / 6시30분내외회관입구경유)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gwangjucaemountain T.010-9312-0510

대포이사변경및 본점이전공고

2010년 09월 28일 당사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승급"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사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사 주주들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결과로서를 "주정후"로 변경하였으므로 2010년 09월 28일 본점을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리산 136-21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주식회사 부견이앤지
대표이사 주정후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FAX:(062) 227-9500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남양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라이즈(이하 "을"이라 한다)는 2010. 10. 7. 개회된 각 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이 "을"을 합병하여 "갑"은 "을"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하고 "갑"이 회사사유의 4주 발행하여 1주로 하여 "갑"회사의 합병하기로 결의 하였고 "을"은 이의가 없었으므로 "갑"이 "을"의 주권을 승계하는 것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를 알리도록 하여 관제회사에 이를 알리도록 하는 주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10월 8일
"갑" 주식회사 남양종합건설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42-15, 42-20
대표이사 최 수배

"을" 주식회사 라이즈
광주광역시 남구 동성동 559-2 지하 101호
대표이사 윤 종철

www.daeoulontour.com
해의 트레이닝센터 단모집
★ 기자여행 ★ 설치순제
★ 골프투어 ★ 허니문
(주)대원여행사 062) 526-7000